

완주-전주 예비수소기업 상생 방안 모색

전주시·전북테크노파크, 전주·완주지역 9개 기업과 간담회 가져… 지원사업 추진 상황 공유·논의

전주시와 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 TP)는 지난 8일 전북TP 통합운영안전센터에서 올해 예비수소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전주·완주지역 9개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소 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완주와 전주 기업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예비수소기업을 선정해 기술사업화와 판로개척,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올해는 △비나텍 △비나에프 씨엠 △하이슬 △한국에너지기술단 △에스엘전자 △바이오랩프 등 전주 지역 6개사와 △에이이에스테크 △에이피그린 △넥스트에너지 등 완주 기업 3개사가 선정됐다.



전주시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8일 전북TP 통합운영안전센터에서 올해 예비수소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전주·완주지역 9개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여 기업들은 지원사업 추진 상황과 그 과정에서 겪은 고충과 건의 사항 등을 공유했다.

시와 전북TP는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지원과 정책 등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전주-완주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협력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공동 대응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동 벤치마킹 견학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시와 전북TP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수소기업 협력체계 구축과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도내 예비수소기업들이 수소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수소 산업 경쟁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전주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완주-전주 상생 발전을 위해 수소산업의 연계·협력·소통 강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수소 거점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청년성장 화합 행사 열려

청년성장프로젝트 일환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가 청년들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축제를 열었다. 시와 전주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기관인 ㈜휴먼제이앤씨는 지난 8일 전주 시그나처호텔 1층 아트홀에서 전주지역 청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청년성장 화합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직단념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의 일상에 활력과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청년 재능기부 참여 사업(캐리커처, 페이스 페인팅

등) △정책 부스(청년 정책 안내 및 홍보) △청년 노래 대결 △화합 프로그램(디트, 푸쉬업, 스쿼트 대결 등)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최근 청년층이 겪고 있는 고용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 등의 부정적인 심리를 함께 모여 치유하고, 서로에 대한 격려를 통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지역 청년들이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도록 해 단순한 관람형 행사를 넘어, 청년 스스로가 가능성을 발

견하고 또래 청년들과 유대감과 지역공동체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운동목 부시장은 “전주의 소중한 자식인 청년들의 성장과 화합, 소통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전주 청년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해진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품고 매사 모든 일에 도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꿈꾸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시민 중심 세정 정책 눈길

마을세무사 제도·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 제공

전주시는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리는 슬로건 아래 시민 중심의 세정 운영으로 생활 속 세무 고민은 물론, '세금은 덜고 혜택은 더 주는' 다양한 혜택을 펼치며 세정의 신뢰 및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시민들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영세사업자나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이 무료로 국세·지방세 상담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이나 동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민원콜센터 등을 통해 관할 마을세무사를 확인하고,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고지서를 받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1장당 250원의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카카오톡 앱·네이버 앱 등 간편결제 앱과 전북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13개 금융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전자고지 서비스는 정기분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에 한해 적용되며, 신청한 다음 달 부과되는 정기본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시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시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궁금한 질문에 답변하고,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거리 홍보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한 지방세 납부에 대한 보상도 마련, 매년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1인당 3만 원 상당의 전주시 상품권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해마다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모범 개인·법인 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지난 8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환경단체인 '프리데코' 운영진과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 청년환경단체와 소통 간담회 가져

전주시가 청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전주시 청년센터인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환경단체인 '프리데코' 운영진과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 4일 열린 전주권 대학생 총학생회 간담회에 이어 시가 추진 중인 '전주청년톡(Talk)' 릴레이 간

담회'의 두 번째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참석자들의 특화 분야인 환경 분야를 비롯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바람, 정책 인지도와 접근성 등 홍보의 실효성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했다.

시는 이날 제시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실질적인 소통 창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서신도서관, '인문학 그랜드 투어' 강연

전주시 서신도서관에서 지난달 17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인(인)문학 그랜드 투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지혜학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인문학을 보다 가까이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신도서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12개 나라의 문화와 예술, 역사를 탐색하는 인문학 강연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회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40여 명이 참여해 지식을 배우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진행된 '오스트리



아' 편에서는 △천년 제국의 역사와 화려한 음악의 도시 비엔나 △모차르트'의 삶을 통해 인간 본연의 고뇌와 열정 △모차르트 오케스트라 현직 실황 △구스타프 클립트 미술관 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설공단, 주차 행정 고도화 위한 AI 실무 교육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은 주차 행정 고도화를 위해 AI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공단은 주차사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AI 관제 사례와 행정업무의 AI 도구 활용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교육과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자제 워크숍으로 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실무 중심의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AI 기술을 어떻게 행정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논의된 AI 기술 적용 사례는 서신지구대 공영주차장이 대표적이다.

서신지구대 공영주차장은 차량 외관 및 번호를 인식하는 지능형 카메라와 실시간 주차면 관제 기술을 적용해 주차 정보의 정확성과 관제 효율을 크게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이 같은 AI 기술을 다른 주차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과 관제센터 통합 연계 방안, 행정업무 자동화 등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눴다.

공단은 AI 기반 스마트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을 정례화하고, 주차 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내재화해 나갈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